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34 주차 (롬 13:1-13:13)

(2016년 4월 22일 - 2018년 4월 28일)

(제5권 34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5 권 – 제34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8 년 4 월 22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세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가? (주일)

오늘의 본문 (롬 13:1~2)

- ¹ Πᾶσα ψυχὴ ἐξουσίαις ὑπερχούσαις ὑποτασσέσθω. (각각의 사람들은 통치하는 권세들에게 복종되어 있도록 하라)
οὐ γὰρ ἔστιν ἐξουσία εἰ μὴ ὑπὸ θεοῦ, (만약 하나님에 의하지 아니하면 권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αἱ δὲ οὗσαι ὑπὸ θεοῦ τεταγμένα εἰσίν. (권세들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 ² ὥστε ὁ ἀντασσόμενος τῇ ἐξουσίᾳ (그러므로 권세에 저항하는 자들은)
τῇ τοῦ θεοῦ διαταγῇ ἀνθέστηκεν, (하나님의 지정하심에 저항하는 것이다)
οἱ δὲ ἀνθέστηκότες ἑαυτοῖς κρίμα λήμνονται. (저항하는 이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2016년 10월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격변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 2016년 한 방송사 뉴스를 통해 당시 통치 임기가 1년도 훨씬 더 남은 대통령의 비리가 보도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모멸감, 수치심, 배신감 등 복합적인 감정들이 분노로 폭발하여 국민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자 일부 보수 기독교계 인사들은 로마서 13장을 근거로 정치 지도자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따라서 그 권력이 어떤 잘못을 하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촛불 집회에 참석했고 결국 2017년 3월 9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곧 이어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고 지금의 대통령이 제 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 인류 역사를 통해 권력은 늘 바뀌어왔다. 시민 혁명도 있었고, 구테타나 반란도 있었다. 또는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 권력이 무너진 경우도 많았다. 권력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시민 혁명을 거쳐 왕정을 무너뜨리고 지금의 민주 정권을 이루어 낸 역사적 경험들이 있다. 미국도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 온 청교도들이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세운 나라다. 원주민들도 그들 나름대로 통치 질서가 있었지만 청교도들은 그것을 하루 아침에 허물어버렸고 모국인 영국 과도 전쟁을 벌여 마침내 독립을 쟁취해 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인간들의 투쟁으로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자리에 또 다른 권력이 들어선 예들이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나라도 이러한 격변을 겪지 않은 나라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권력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 바뀌어왔고 또 지금도 진행 중이다.

다시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본문으로 돌아가보자. 사도 바울이 한 권고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파면되어 현재 감옥에 있는 그 대통령도 그렇고 현재 대통령이 가진 권력도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만약 한국에서 시민들이 로마서 말씀에 순종하여 통치 권력을 향해 촛불을 들지 않았다면 지금의 권력은 탄생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유럽의 각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남한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아 통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북한 정권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통치 권력이라는 말이 성립하게 된다. 이처럼 로마서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모순을 야기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불합리하고 가변적인 권력의 속성에 비춰 볼 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바울의 명령에는 정말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는 것일까?

쫓겨 정국이 한창 진행되던 때에 기독교 언론들은 앞다투어 로마서 13 장 1-2 절 말씀을 들고 나왔고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 물론 논쟁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역사적인 근거나 사도 바울 당시의 상황 등을 근거로 선하지 않은 권력에 저항하고 이를 교체하려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패한 권력의 민낯에 분개하여 시민들은 집단적인 반기를 들고 일어났고 그런 상황에서 로마서 13 장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였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글이 쓰여지던 당시의 일차 독자와 글쓴이가 처한 상황, 정치·사회·문화·종교적 배경, 문맥과 문법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왜곡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가장 오해와 논쟁이 많은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 장 1-2 절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바울이 보낸 로마서의 일차 독자들도 이 구절을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예수님 본인도 당시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극렬히 비판하면서 그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유익을 추구하는 종교는 그 교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 오랜 전통으로 굳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은 예외 없이 심판받을 거라고 경고하셨다. 만약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를 전하지 않고 곡해하여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과 화합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 무엇보다 우선하기에 세상의 권력도 그분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둘째, 바울은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바울 자신도 유대 지도자들에게 맞서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네로 황제 통치 말기에 로마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화재가 났는데 이때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방화의 주범으로 몰아 무차별적인 박해를 가했는데 그때 바울도 그 일에 연루되어 끝내 순교 당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로마 황제의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순교한 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따라서 바울이 한 이 권면은 권력에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반하는 종교적 신념,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정치 권력은 언제나 저항의 대상이었지 복종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초대 교회 교인들은 여실히 보여주었다. 도미시안 황제 때의 극심한 핍박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갔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짐승 또는 사탄으로 묘사하고 있다. 로마서 13 장 1 절~2 절의 말씀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권력에 저항할 수 있었겠는가?

이 세상의 권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의 대상이 되려면 먼저 그 권력이 하나님의 숭고하신 뜻에 따라야 한다. 권력을 가진 자가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실 것이다. 오늘날 그 과정은 주로 시민들의 결집된 힘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 권력 그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그렇다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아니다. 그럴 경우 그 권력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바울이 한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도 무방할 것이다. 권세자가 가진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 권력을 자기 멋대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이고 이미 부패한 권력일 뿐이다. 그런데도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비진리에 굴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권력자들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는 무엇인가?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 13:1~2)

- ¹ Πᾶσα ψυχὴ ἐξουσίαις ὑπερχούσαις ὑποτασσέσθω. (각각의 사람들은 통치하는 권세들에게 복종되어 있도록 하라)
 οὐ γὰρ ἔστιν ἐξουσία εἰ μὴ ὑπὸ θεοῦ, (만약 하나님에 의하지 아니하면 권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αἱ δὲ οὗσαι ὑπὸ θεοῦ τεταγμένα εἰσὶν. (권세들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 ² ὥστε ὁ ἀντασσόμενος τῇ ἐξουσίᾳ (그러므로 권세에 저항하는 자들은)
 τῇ τοῦ θεοῦ διαταγῇ ἀνθέστηκεν, (하나님의 지정하심에 저항하는 것이다)
 οἱ δὲ ἀνθέστηκότες ἑαυτοῖς κρίμα λήμνονται. (저항하는 이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뒤 문맥을 잘 살피지 않고 마음에 드는 문장만 잘라서 해석하면 여지없이 오류에 빠지기 십상이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 하라는 말씀도 바로 이런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잠깐 성경을 해석할 때 문단을 잘못 나누거나 문맥을 잘못 짚어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을 찾아 보기로 하자. 누가복음 21 장 1 절~3 절 말씀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케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²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³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눅 21:1-3).

그 유명한 과부의 두 렙돈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다. 이 일은 예수님 눈 앞에서 직접 벌어진 일이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헌금통에 돈을 넣었다. 하나는 부자들이었고 그 뒤를 이어 어떤 가난한 과부가 왔다. 그녀가 넣은 헌금은 겨우 두 렙돈이었다. 렙돈은 동(구리)으로 만들어진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로 1앗사리온이 8렙돈에 해당한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린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두 렙돈은 참새 반 마리 값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부가 넣은 두 렙돈은 그녀의 전재산이었다. 과부는 자기의 전재산을 헌금함에 던져 넣은 것이다. 예수님은 이 광경을 목격하시면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고 말씀하셨다. 과연 예수님은 그 과부를 칭찬하신 것일까? 아니면 과부의 전 재산인 두 렙돈마저 탈취해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을 간접적으로 비난한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별로 큰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다. 앞뒤 문맥만 살펴봐도 금방 알 수 있다. 누가복음 20장 45절~21장 6절까지 읽어보자.

“⁴⁵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⁴⁶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⁴⁷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중략)... ⁵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대 ⁶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눅 20:45-21:6).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과 제자들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성전, 그것도 연보케 앞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가르치셨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자기들 입맛에 맞

게 해석하여 백성들을 호도하던 세력이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를 좋아했고, 과부의 가산까지도 다 집어 삼켰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마침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었다. 과부는 끼니도 못 이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인데도 서기관들의 왜곡된 가르침에 속아서 그 돈을 전부 헌금통에 넣은 것이다. 만약 이 해석에 수긍할 수 없다면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 뜻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그들이 성전에 헌금통을 세워 둔 가장 큰 이유는 성전을 보수하고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서였다. 제자들이 아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이 성전이 미석과 헌물로 단장된 것이 아니냐고 말한 것만 봐도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제는 과부의 두 렵돈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바란다.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흑세무민한 대표적인 사례이지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칭찬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로마서 13 장으로 돌아가보자. 이 말씀 또한 앞뒤 문맥을 살피지 않고 거두절미해서 해석하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많다. 오늘날 독자들이 로마서 13장 1절2절을 읽을 때 문맥상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12 장과 13 장을 연결하는 부분이다. 로마서는 하나의 편지다. 원래 장절이 없다. 후대 사람들이 나누어 놓은 장절이 때론 성경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로마서 12 장 마지막절은 이렇게 끝난다.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롬 12:21).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권력은 선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롬 8:28 절 참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은 당연히 권력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은 권력 또한 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권력이 선하다고 해서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인간까지 다 선한 것은 아니다. 새 관점을 주장하는 학파의 대표주자인 톰라이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어느 칼럼에서 올린 그의 해석을 살펴보자.

“톰 라이트는 <로마서>를 통해 13 장 1-7 절을 주해하면서 '권위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살피고 있다. 그는 '신학적 유행도 변하고, 약점이 되는 부분도 한 주해 본문에서 다른 본문으로 이동한다'며 "본문은 당시 급성장하던 황제 숭배 내부에서 설파되던 화려한 주장을 배경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바울에 따르면 통치자들은 그 자체로 신적 존재가 아니고, 그들을 세우신 장본인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그들은 이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 한다. 그는 '로마서 13 장은 오만하고 스스로를 신격화한 통치자들을 심하게 좌천시키는 내용이며, 전체주의를 강화하기보다는 약화시키는 내용'이라며 '여기에 암묵적으로 깔린 사실은, 만약 통치자 자신들이 그들의 권한 범위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직무를 받았다면 그들 자신 역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리라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천투데이 2016 년 12 월 11 일자에서 인용.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95597>).

그 당시 막강했던 로마 황제의 권력조차 하나님께 위임 받은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후에 권자에서 축출되었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권력자가 선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에게 정복당해 굴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력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권력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권세자는 하나님의 종인가?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 13:3~4)

- ³ οἱ γὰρ ἄρχοντες οὐκ εἰσὶν φόβος τῷ ἀγαθῷ ἔργῳ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권세자들은 두려움이 아니다)
ὁλλὰ τῷ κακῷ.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다.]
θέλεις δὲ μὴ φοβεῖσθαι τὴν ἐξουσίαν· (당신들이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도다)
τὸ ἀγαθὸν ποίει, (선을 행하라)
καὶ ἕξεις ἔπαινον ἐξ αὐτῆς· (그리하면 그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 ⁴ θεοῦ γὰρ διάκονός ἐστιν σοὶ εἰς τὸ ἀγαθόν· (왜냐하면 그는 너에게 선을 주는 하나님의 종이다)
ἐὰν δὲ τὸ κακὸν ποιῆς, φοβοῦ· (만약 그러나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라)
οὐ γὰρ εἰκῆ τὴν μάχαιραν φορεῖ· (그가 이유없이 칼을 가지지 않았다)
θεοῦ γὰρ διάκονός ἐστιν ἐκδικῶς εἰς ὀργήν (진노로 처벌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τῷ τὸ κακὸν πράσσοντι.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권세자들은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 이 말에는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권세자들이 선과 악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이가 선을 행했는데 권세자가 악한 사람이라면 그는 선악 판단을 공정하게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긴 세월을 독재 치하에서 보냈다. 무고한 시민들이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 권력자들이 정의의 편에서 그 권력을 선하게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의도로 선을 억압할 때가 많았다. 이처럼 하나님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할 경우 권력은 선보다 악을 강요하기 마련이다. 이럴 경우 그 권력에 굴종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선생이라 칭하는 한 관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눅 18:19).

오직 선한 이가 하나님 한 분뿐이라면 선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선을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권세자들은 선을 대행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선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에 직면했다. 기독교가 그토록 핍박을 받은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한다는 이유로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한 권면에는 이 같은 조건이 생략되었다고 본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그 행위가 선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올바르게 권력을 행사해야만 가능하다.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있을 즈음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베드로 전서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한 권면과 비슷한 취지의 권면이 적혀 있다.

“⁴³ 인간 (세상)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⁴⁴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

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벧전 2:13-14).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도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라고 말한다. 위에 있는 왕이 나 혹은 왕이 보낸 자, 즉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늘 순복 하라고 했다. 두 사도가 인정한 권세자들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는 자들이다. 오늘날 독자들은 사도 바울이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이상적인 권력자를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바울이 말하는 선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합의한 선이다. 그 선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돼 있다.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사람들을 멸시하고 착취하며 소외시키는 권력자들은 결코 선하지 않다. 바울이 지금 그런 자들에게까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초대 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권력은 크게 두 가지로 고통을 가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직접적인 핍박이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된 도미시안 황제(AD81-96년 재위)때에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극심했다. 당시에는 황제의 명령이 곧 법이던 시절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은 핍박을 면하게 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대적인 핍박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갖가지 고통들이 있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순교에까지 이르지 않는 않지만 일상에서 괴롭힘 당하고 놀림을 당하는 것은 감내하기 힘든 고통이었다. 그렇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통에 대해 베드로는 참고 인내하라고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가르쳤다.(벧전 2:17-21참조).

하나님께서 부여한 선한 권력을 본래의 뜻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악용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살펴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질 것이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내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서로 대립했다. 그들은 국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독특한 종교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로마 황제는 총독을 가이사라에 파견하여 유대인들을 감독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종교적 통치를 허용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 외에 성전세를 징수하는 것까지도 허용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실상 종교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한 셈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오히려 그들의 욕망을 채우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바울은 권세자를 하나님의 사자요 성도들에게 선을 이루는 자라고 선언한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권세자가 그 그런 것은 아니다. 아무리 권세자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진리를 방해하는 자들에게까지 무작정 순종할 수는 없다. 또한 예수가 가르친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멸시하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의 뜻대로 따를 수는 없다. 만약 그렇다면 성도들 또한 악을 행하는 공범들이나 마찬가지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순종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이 이땅에 권세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세로 그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권력자들을 대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과 국가에 대한 의무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 13:5~7)

- ⁵ διὸ ἀνάγκη ὑποτάσσεσθαι, (그러므로 굴복되는 것이 필요하다)
οὐ μόνον διὰ τὴν ὀργὴν (진노로 인한 것 뿐만 아니라)
ἀλλὰ καὶ διὰ τὴν συνείδησιν. (양심을 인한 것이기도 하다)
- ⁶ διὰ τοῦτο γὰρ καὶ φόρους τελεῖτε· (이것 때문에 당신들이 세금을 바친다)
λειτουργοὶ γὰρ θεοῦ εἰσιν εἰς αὐτὸ τοῦτο προσκαρτεροῦντες,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일에 항상 헌신한다)
- ⁷ ἀπόδοτε πᾶσιν τὰς ὀφειλάς,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라)
τῷ τὸν φόρον τὸν φόρον,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주고)
τῷ τὸ τέλος τὸ τέλος,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주고)
τῷ τὸν φόβον τὸν φόβον,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τῷ τὴν τιμὴν τὴν τιμὴν.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그간 종교인 과세 운동이 모두 반기독교 정서 확산이라는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서 출발했다...(중략)...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과도하게 문제를 일으키며, 기독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주시해 왔다...(중략)...역대 모든 정부와 사법 당국도 헌정 질서로서의 국정 관행이라고 판단한 종교인 비과세 관습법에 대해 ‘탈세’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중략)...대한민국 정부가 종교인 비과세를 하게 된 것은 역사적 당위성이 있다...(중략)...지난 66년간 목회자를 포함한 종교인들은 탈세를 했거나 형평성에 어긋난 대우를 받아온 것이 결코 아니다...(중략)...정교 분리(헌법 제20조)의 헌법적 가치는 종교가 가진 특수성과 역사성을 고려해 국가가 종교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것...(중략)...인간의 존재는 종교와 경제 활동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현 세법 체계는 종교 영역에서의 목회자의 직분상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 목사직의 수행은 대가성이라는 경제 원칙을 배제한다...(중략)...세금을 내는 문제는 본질의 문제이므로, 명분과 개념 정립이 매우 중요한데, 목사는 교회와 분리되지 않는다...(중략)...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납세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본질상 변증법적 관계인 국가와 교회 관계 가운데 교회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에 교회의 공신력이 달려있지 않다.”

이 글은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성직자 납세 문제에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다. 성경은 납세를 종교의 영역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은 세상의 영역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한다. 로마서는 성직자와 일반 성도를 구분하지도 않는다. 사실 당시에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교회에서 각자가 맡은 직분을 성실히 행하면 충분했기 때문에 현대 교회와 같은 피라미드식 직분 체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따라서 바울의 이 말은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있는 한, 그리고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한 국가가 정한 의무를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방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납세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⁴⁵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울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⁴⁶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

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¹⁷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대¹⁸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¹⁹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테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²⁰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²¹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²²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마 22:15-22).

예수님께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나 옳지 않느냐고 질문을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다. 그들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은 세금으로 내는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어디서 났는지 금새 로마 정부에서 발행한 동전을 가져왔다. 예수님은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질문하셨다. 그들이 대답한다.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에 로마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한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이다. 오늘날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납세 문제를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말한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⁷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롬 13:6-7).

세금 문제는 비단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 때론 공연히 탈취를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종종 세금을 탈루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필자가 살고 있는 미국의 경우 탈세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이 붙는다. 목회자라고 예외는 아니다. 다만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법상 일반 근로자들과는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 바울은 그들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로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위임한 일에 힘쓰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실 오늘날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온갖 사회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범위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다. 바울 당시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다. 특히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의 갈등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했는데 그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로마를 떠나야만 했다.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온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로마 권력이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다. 바울은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면 된다. 절세는 있어도 탈세는 안 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대해 어떤 의무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왜 당신에게 옵션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나요?

사랑의 빛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 13:8~10)

- ⁸ Μηδενὶ μηδὲν ὀφείλετε (어느 누구도 아무런 빛도 지지말라)
εἰ μὴ τὸ ἀλλήλους ἀγαπᾶν. (만약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ὁ γὰρ ἀγαπῶν τὸν ἕτερον νόμον πεπλήρωκεν.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지는 율법을 성취했느니라)
- ⁹ τὸ γὰρ οὐ μοιχεύσεις, (간음하지 말라)
οὐ φονεύσεις, (살인하지 말라)
οὐ κλέψεις, (도적질하지 말라)
οὐκ ἐπιθυμήσεις, (탐하지 말라)
καὶ εἴ τις ἑτέρα ἐντολή, (만약 그와에 다른 계명이 있을 지라도)
ἐν τῷ λόγῳ τούτῳ ἀνακεραλαιούται [ἐν τῷ]. (그 법들은 [다음의 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ἀγαπήσεις τὸν πλησίον σου ὡς σεαυτόν.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 ¹⁰ ἡ ἀγάπη τῷ πλησίον κακὸν οὐκ ἐργάζεται.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πλήρωμα οὖν νόμου ἡ ἀγάπη.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성취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13 장은 여러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다. 앞서 세상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 언급한 바울은 다시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 말한다. 그리고 보면 13장 1절~7절은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응하는 이 땅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이다. 사실 모든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직후 곧바로 이 땅을 떠나지 않는다. 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야 한다. 믿고 나서도 모든 것이 그대로다. 직업도, 거주지도 그대로고 만나는 사람들도 그대로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며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세계관을 바꾸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고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는 데 치중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칙은 이타적 사랑이다. 헬라 문화에서 사랑은 일반적으로 에로스를 의미한다. 에로스라고 해서 육체적인 사랑만을 상상하지 말라. 에로스는 물질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랑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분명한 사랑의 대상이 존재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에로스다. 물론 친구간의 우정과 같은 사랑을 나타내는 필리아 (φιλία)라는 단어도 종종 쓰인다. 필리아는 남녀 관계를 초월해 인간 서로간의 상호 우애를 의미하는 단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타인에 대한 사랑은 에로스나 필리아를 훨씬 뛰어 넘는 아가페적 사랑이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이며 자기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뜻한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대로 성도들이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명령은 오직 사랑함으로 서로 부담을 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도리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특히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잡

하시던 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곧 예수님의 유언이 됐는데 그 유언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³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³⁵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요 13:34-35).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이 아니다. 성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는 말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는 ‘값 없이’라는 말을 너무도 쉽게 하는데 이 말은 우리의 쫓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수치를 겪으셨다는 의미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게 된 것이다. 성도는 그 빚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만찬장에서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벧전 1:22).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그 영이 깨끗하게 되었고, 비로소 형제를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보여 준 사랑은 어떠한 조건도 없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지도 않는다. 서로 사랑하는 일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 누리는 삶의 방식이다. 그렇기에 아직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사랑을 베푸는데 인색하거나, 그 일을 공로로 내세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게 자연스런 일상이 된다. 자신의 유익에 눈이 어두워 사랑을 하면서도 늘 인색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찾아 온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우리를 서로 잡아 끼어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에게서 나온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나요? 그 사랑은 믿기 전에 했던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 13:8~10)

- ⁸ Μηδενὶ μηδὲν ὀφείλετε (어느 누구도 아무런 빚도 지지말라)
εἰ μὴ τὸ ἀλλήλους ἀγαπᾶν· (만약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ὁ γὰρ ἀγαπᾶν τὸν ἕτερον νόμον πεπλήρωκεν.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했느니라)
- ⁹ τὸ γὰρ οὐ μοιχεύσεις, (간음하지 말라)
οὐ φονεύσεις, (살인하지 말라)
οὐ κλέψεις, (도적질하지 말라)
οὐκ ἐπιθυμήσεις, (탐하지 말라)
καὶ εἴ τις ἕτέρα ἐντολή, (만약 그와에 다른 계명이 있을 지라도)
ἐν τῷ λόγῳ τούτῳ ἀνακεραλαιούται [ἐν τῷ]. (그 법들은 [다음의 법으로] 요약될 수 있다)
ἀγαπήσεις τὸν πλησίον σου ὡς σεαυτόν.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 ¹⁰ ἡ ἀγάπη τῷ πλησίον κακὸν οὐκ ἐργάζεται·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πλήρωμα οὖν νόμου ἡ ἀγάπη.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성취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겨우 3년 반 동안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그분의 가르침은 그 어떤 율법학자보다 뛰어났고 그가 일으키는 이적은 세상의 어떤 과학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는 물론이고 예루살렘에까지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다. 성경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왔고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이들이 그의 강론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한 부자 관원이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또 배운대로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다. 분명 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 틀림이 없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생애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 직전 그 부자 관원을 만나게 되었다. 공관복음은 그와의 만남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는 누가복음 말씀을 인용하기로 한다.

“¹⁸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¹⁹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²⁰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²¹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²²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²³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²⁴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어떻게 어려운지 ²⁵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²⁶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²⁷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눅 18:18-27).

이 부자 관원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다. 필자는 이 사람이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그는 부자였고, 관직에 올라 어느 정도의 권력도 갖고 있었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별로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십계명을 언급하시자 그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다면 그에게는 이미 영생이 따 놓은 당상인 셈이다. 율법을 지키는 일 이라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다.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아마도 그는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것이다.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우리는 그가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모른다. 그가 율법을 모두 지켰다고 말한 것을 볼 때 적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이든 아니면 그가 성실히 모은 재산이든 분명한 것은 그가 부자라는 것과 그가 자기 재산을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명령은 도저히 따를 수 없었다.

먼저 자기 소유의 재산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다행스런(?) 소식부터 들려주고 싶다. 하나님 나라의 결코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인간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각 사람에게 그 자격이 부여된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남은 숙제가 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 또는 어떻게 그 자격을 유지하느냐가 아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어린 아이나 하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질문이다.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시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언제나 사랑이다. 바울도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실제적인 사랑이 가능해진 사람들이다.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도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 필요가 없는 거추장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가진 재산에 그리 집착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그것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지에 더 관심이 가게 마련이다.

기독교는 어떤 이론이 아니다. 십자가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신비한 능력이 있다. 성경은 결코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기독교인들의 삶에는 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바울의 가르침이 전부 사랑을 향하고 있다. 사랑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사랑을 해서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결과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웃 사랑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양상이다. 그런데 아직도 돈 얘기만 나오면 발발 댄다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물을 쓰는데 인색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선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거나 그런 자신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 한다면 그 또한 자신을 깊이 돌아보기 바란다. 사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 나라가 본향을 깨달은 성도들에게 사랑은 옵션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웃 사랑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우러난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권면한다(요일 3:18). 당신은 진정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성도의 삶을 누리고 있다.

목상을 위한 질문

어째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됩니까? 당신은 그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 13:11~13)

- ¹¹ Καὶ τοῦτο εἰδότες τὸν καιρὸν, (그리고 당신들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바와 같이)
ὅτι ὥρα ἤδη ὑμᾶς ἐξ ὕπνου ἐγερθῆναι, (너희가 잠으로부터 깨어날 그 시간이)
νῦν γὰρ ἐγγύτερον ἡμῶν ἢ σωτηρία ἢ ὅτε ἐπισταύσομεν. (지금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 ¹² ἢ νύξ προέκοψεν, (밤이 지나가고)
ἢ δὲ ἡμέρα ἤγγικεν. (낮이 가까워진다)
ἀποθώμεθα οὖν τὰ ἔργα τοῦ σκότους, (그러므로 밤의 일을 벗어버리자)
ἐνδυσώμεθα [δὲ] τὰ ὄπλα τοῦ φωτός, ([그리고] 빛의 무기를 장착하자)
- ¹³ ὡς ἐν ἡμέρᾳ εὐσημιόνως περιπατήσωμεν, (낮에와 같이 단정히 걷자)
μὴ κώμοις καὶ μέθαις, (방탕과 술취하지 말고)
μὴ κοίταις καὶ ἀσελείαις,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μὴ ἔριδι καὶ ζήλῳ, (분쟁과 질투하지 말고)
- ¹⁴ ἀλλ' ἐνδύσασθε τὸν κύριον Ἰησοῦν Χριστὸν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καὶ τῆς σαρκὸς πρόνοιαν μὴ ποιεῖσθε εἰς ἐπιθυμίαν.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육신의 공급을 하지 말라)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나의 깊은 생각이 내 영혼의 심연을 파헤치고 나의 모든 비참함을 찾아내어 마음의 눈 앞에 쌓아 놓았을 때 눈물의 홍수를 동반한 큰 폭풍이 내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중략)...나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어느 무화과 나무 밑에 쓰러져 흘러나오는 나의 눈물을 마음껏 흐르도록 했습니다...(중략)...”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당신께서 영원히 노하시렵니까? 나의 이전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나는 그 죄악으로 인해 아직도 꽂혀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중략)...나는 이렇게 말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어떤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었으나 계속 노래로 반복되었던 말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tolle lege, tolle lege)라는 것이었습니다...(중략)...나는 그 소리를 내게 성서를 펴서 첫눈에 들어 온 구절을 읽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중략)...나는 바로 알리피우스가 있는 곳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을 일어나 떠날 때 거기에서 사도의 책을 놔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책을 집어들자마자 펴서 첫눈에 들어 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 내용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3-14)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infusa cordi meo)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어거스틴 지음/선한용 옮김, *교백론*(대한기독교서회 (2003))pp. 272-273 에서 인용함).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진 어거스틴의 회심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다.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 문맥상 이미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 죄 문제로 인해 고통받던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이미 온전해 졌음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온갖 죄로 찌든 삶을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진리를 깨닫고 보니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온갖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자신을 이미 당신의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순간 그를 감싸고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리고 두려움이 떠난 빈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채우고 있음을 체험했다.

놀랍게도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받은 말씀은 세상적인 삶으로부터 떠나라는 명령이었다. 세상의 방탕한 삶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명령을 받을 자격은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진다. 방탕한 삶은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세상의 가치관 대로 살아가는 삶은 이미 지나간 과거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된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선을 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따를 뿐 아니라 그것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기독교가 세상의 가치관을 펴뜨리는 숙주의 역할을 할 때도 있다. 게다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당사자는 자기가 방탕하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도 많다. 로마서에 용서, 사랑, 대속 등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고, 그 당시 어거스틴이 로마서 전체를 읽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3 장이나 4 장 또는 8 장이 아닌 13 장의 바로 이 말씀에서 회심을 하게 된 건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회심은 단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회심에는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믿는 확신과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신분의 변화,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변화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단지 성경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알기만 할 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사도 바울이나 어거스틴이 다른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

회심은 단순히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두움, 흑암, 사망의 권세 등으로 묘사한다. 그렇기에 세상에 속해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행하는 일 모두가 사실은 죽은 행실들이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과 무관하다. 스스로의 행위로 자신의 선함을 입증하려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도는 이런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원리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일까? 바로 용서와 사랑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그런 삶을 살도록 능력을 부여 받은 사람들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1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2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3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벧전 4:1-3).

베드로나 바울의 권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의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하다. 바울, 어거스틴, 베드로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다. 그들만 특별한 삶을 살도록 명령받지 않았음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목상을 위한 질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가장 달라졌습니까?